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p>○ 파리 기후변화 협약 아래 세계 기후 조치의 새로운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 정부는 2015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채택함. 이 협정의 이행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됨</li> <li>- 합의된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는 파리 협정에 포함된 기후변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의 후원 하에 모든 나라들이 기후변화 도전을 해결하는 데 그들 역할과 국가 간 신뢰를 증진 시킬 것임</li> <li>- 카토비체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1)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의 새로운 재정 목표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2) 2023년 기후조치의 효과를 글로벌 주식으로 매각하는 방법 3) 기술 개발 및 이전 진행사항 평가방법</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15, UNFCCC)</a></p>
	본부	<p>○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확산되는 탄소 가격(Carbon Pricing)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은 파리 협정에 따른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 가격 수단을 사용하거나 고려하고 있으며, 그 사례들은 이번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COP24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됨</li> <li>- 2018년 4월,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탄소 가격 책정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기후 정책 지지자들은 탄소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것에 더 집중함</li> <li>- 이번 COP24의 탄소 가격 결정기구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 관한 행사에서, 2008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해 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환경기후변화 전략부 장관은 지방의 성공적인 녹색</li> </ul>

기후기술\_2018-20(총-41)

www.gtck.re.kr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8.12.18.



		<p>성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기후변화사무국은 2년 전 연례 기후회의인 모로코 COP22 이후 탄소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기술 지원을 해왔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14, UNFCCC)</a></p>
CTCN	본부	<p>○ <b>CTCN 첫 5개년 보고서 발간 - 진행 보고서 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CN의 계획에 따른 NDE와 기술전문가들과 자금 조달자들의 전세계적인 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CTCN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5개년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79개 국가에서 137개 기술 솔루션이 제공되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 2,500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으며, 1,0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li> <li>- CTCN은 기존의 4,000만 달러의 투자에서 최근 기술이전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여 6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4, CTCN)</a></p>
GCF	본부	<p>○ <b>GCF, WMO와 기후 대응을 위한 과학 분야 강화에 합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기상기수(WMO)와 녹색기후기금(GCF)은 기후, 수자원 분야의 WMO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GCF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합의</li> <li>- 서명된 새로운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WMO는 GCF 인증기관이 수문학적, 기상학적 시스템과 관련된 기후정보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함</li> <li>- 이 협정은 기후금융의 기회와 기후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과학을 기후 금융에 도입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11, GCF)</a></p>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외	GGGI	<p>○ <b>멕시코 소노라 주, GGGI 녹색 금융 워크숍에서 녹색 채권(Green Bond)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녹색 성장 연구소(GGGI)와 소노라(Sonora State)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내 녹색 채권을 통해 기후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함. 소노라주는 최근 주 통합교통체계(ITS)등을 통해 도시 이동성 사업을 포함한 녹색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함</li> <li>- 해당 워크숍은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MRV)에 관한 세션과 녹색 채권에 대한 보고로 마무리 됨. GGGI는 2019년에도 녹색성장 프로젝트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소노라 주를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11, GGGI)</a></p>

## 3. 기후기술 정책

구분		내용
국내	과기정통부	<p>○ <b>한국 정부,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국 진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4)에서 한국이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국 진출하였다고 발표</li> <li>* Climate Technology Center&amp;Network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li> <li>- CTCN 이사회는 CTCN 인사예산 등 조직 운영,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 등을 심의·평가하는 협의체로,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향후 2년('19~'20)간 이사로 활동할 예정</li> </ul> <p>○ <b>CTCN 사무국,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를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지정기구*(NDE)와 회원기관으로 각 각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CN 설립 5주년을 맞아 총회에서 증서를 수여</li> </ul>

		<p>* Nat'l Designated Entity(국가지정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국가별 창구(韓:과기정통부)</p> <p>○ <b>과기정통부, UNEP(유엔환경)과 MOU 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CN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 해 나가고자 12월 11일 체결</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17 과기정통부)</a></p>
정책일반		<p>○ <b>환경부, 2020년부터 미세먼지 인공지능으로 예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임</li> <li>- 서울대 등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수치예보 결과를 고려해 예보관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미세먼지 예보의 지수 적중률은 87%, '나쁨' 이상의 고농도 감지 확률은 67% 수준임. 인공지능 예보 시스템은 지수 적중률을 90% 이상, 고농도 감지 확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li> <li>- 인공지능을 통해 동아시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들을 더 정확히 분석하면 원인 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져 국제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16, 이투데이)</a></p>
		<p>○ <b>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 발전을 위해 한-EU 공동세미나 개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거래소는 한국환경공단 및 한-EU 협력 사업단과 함께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KRX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한-EU 공동 세미나'를 개최</li> <li>- 이번 세미나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유관기관·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배출권시장 2기 신규제도, 유럽의 배출권시장 운영경험 및 시장전략 등을 공유함</li> <li>- 한국거래소는 그간 분산 제공돼 온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시장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http://ets.krx.co.kr)을 지난달 개설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1/28, 뉴스스)</a></p>

--	--	--

##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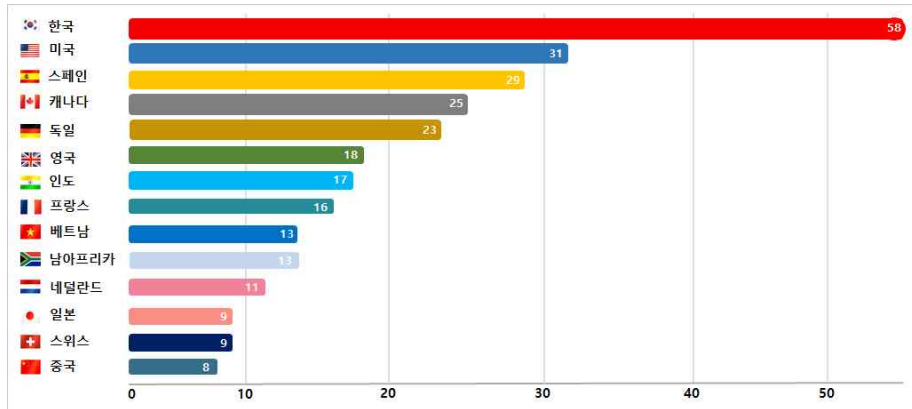
### □ 파리협정 비준 현황

- 197개 당사국 중 184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

### □ CTN 가입기관 현황 (2018.12.18.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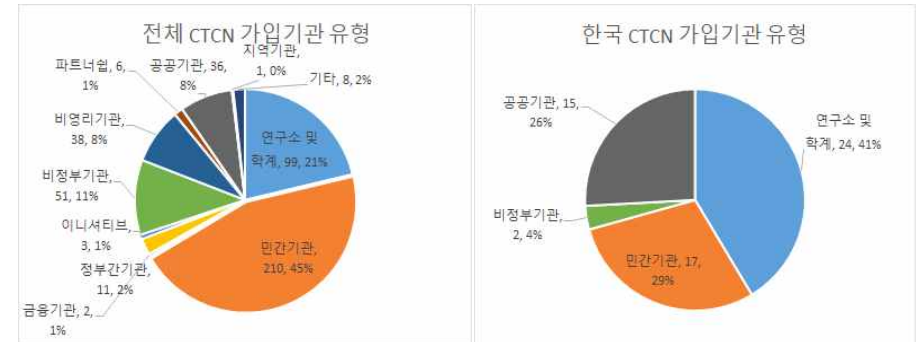
- 총 465개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 CTN 가입기관 유형 (2018.12.18. 현재)



<CTN 전체 465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58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465개 CT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210건으로 4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9건(21%),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51건(11%), 38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58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4건(41%)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7건(29%)을 차지하고 있음

### □ 한국 CTN 가입기관 (2018.12.18.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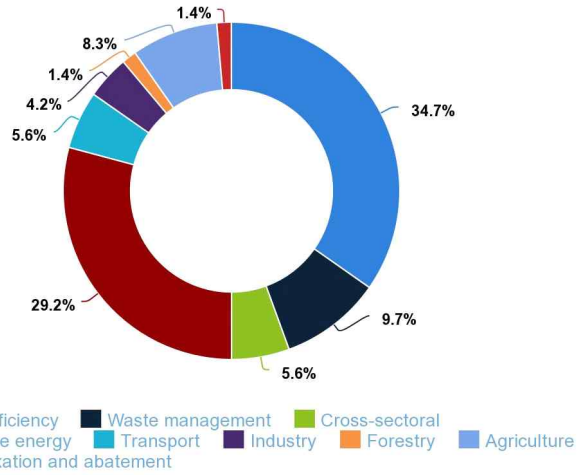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40	KPMG Korea	N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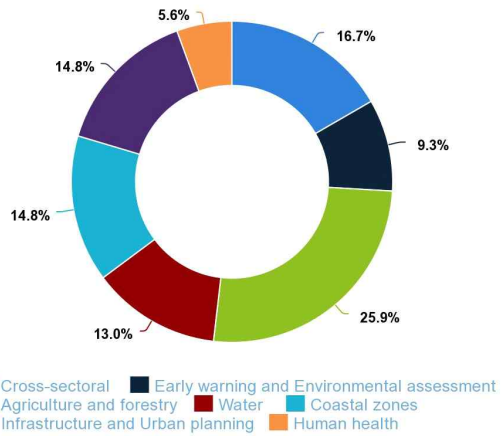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우(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0407
48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N0412
49	한국농어촌공사(KRC)	N0431
50	한국광해관리공단(MIRECO)	N0434
51	한국발명진흥협회(KIPA)	N0436
52	산림조합중앙회	N0448
53	(주)에이엘지시스템즈	N0449
54	(사)더브릿지	N0452
55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HU)	N0457
56	ASEIC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N0458
57	(주)유신	N0463
58	한국지역난방공사(KDHC)	N0465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2018.12.18. 현재)

- 제출된 TA : 226개
- Active TA : 126개 (감축관련 TA-51.8%, 적응관련 TA-30.7%)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